

활짝 열리는 ——— 전자신문시대

전자신문시대가 열리고 있다. 신문지면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양의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편집·인쇄과정을 거치지 않아 속보성이 앞서고 또 편집자와 대화도 가능한 전자신문.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70년대 이미 초기형태의 전자신문이 실용화되었고 우리나라도 91년부터 개발에 착수했다. 앞으로 20년 후 2015년까지는 우리나라도 정보고속도로망을 완성, 본격적 전자신문시대를 열 것이다.

전자신문(electronic newspaper)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전자신문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기 쉬우나 뉴스를 종이에 인쇄된 형태로서가 아니라 컴퓨터와 통신망을 이용해서 서비스하는 형태를 말한다.

현재 중앙의 주요 종합일간지가 데이콤의 천리안이나 한국PC통신의 하이텔과 같은 부가가치통신망(VAN)을 통해 뉴스를 서비스하고 있다. 비록 초기 형태이긴 하지만 이것도 엄연한 전자신문에 속한다.

정보량 무제한 공급

우리나라는 이같은 초기형태의 전자신문시대가 1991년부터 본격적인 문이 열렸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 여러나라는 이같은 초기형태의 전자신문시대가 이미 1970년대부터 실용화됐다. 그래서 선진 여러나라는 이제 단순히 뉴스를 문자형태로 PC화면에 제공하는 초기단계의 전자신문시대를 벗어나 여러가지 부가적인 서비스 체제를 갖추어가고 있다.

전자신문은 신문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첫째, 전자신문은 지면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신문은 한정된 지면으로 인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량이 제약받기 마련이다. 그래서 기사는 선택할 수 밖에 없고 내용은 요약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전자신문은 이같은 제약

을 받지 않는다. 얼마든지 많은 양의 정보를 담을 수 있다. 따라서 전자신문은 편집자가 기사를 뉴스의 가치에 따라 삭제하거나 내용을 요약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전자신문은 DB구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독자가 보고 싶은 지난 신문은 물론 관련된 정보를 찾아(檢索)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자신문은 조사자료실의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다.

셋째, 전자신문은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속보성이 있다. 신문이 가정에 배달되기 위해서는 편집과 인쇄를 한 후 배달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그러나 전자신문은 인쇄와 배달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기사가 편집되는 그 즉시 가정에 배달할 수 있다.

넷째, 전자신문은 방송과 인쇄매체가 가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자신문은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방송이 가진 속보성은 물론 방대한 저장용량을 가진 DB를 이용할 수 있어 신문의 기록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뉴스공급자와 대화도

예를 들어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이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을 경우 그 즉시 전문을 독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에 관련된 배경 설명과 해설에서 과거의 자료까지 제

공할 수 있다.

다섯째, 전자신문은 독자와 뉴스를 만드는 사람 사이에 대화가 가능하다. 독자들은 뉴스를 읽고 의문나는 것에 대해 PC통신을 통해 곧바로 질문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답변도 얻을 수 있다. 요즘 미국의 우수한 언론사들이 전자신문의 질과 서비스 개선에 큰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1993년 5월 미국 샌호제이 머큐리 뉴스는 머큐리센터를 출범시켰다. 샌호제이 머큐리 뉴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그룹 나이트리더 계열사이다. 머큐리센터에는 16명의 전문인력이 투입되어 VAN사업회사인 아메리카 온라인을 통해 전자신문을 내 보내고 있다.

머큐리센터는 샌호제이 머큐리 뉴스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신문에 실리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독자들이 필요한 관련자료를 컴퓨터로 검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또한 1985년 5월 이후의 신문이 모두 수록되어 있어서 이 기간의 신문을 날짜와 내용별로 찾아 볼 수 있다.

머큐리센터는 뉴스를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독자들이 기자들과 언제나 대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머큐리센터는 컴퓨터뿐 아니라 음성(ARS)과 팩스도 정보전달매체로 활용하고 있다. 머큐리센터의 뉴스 콜 서비스는 뉴스·날씨·영화·스포츠게임 일정·주식시세 등을 독자의 요청에 따라 음성 또는 팩스로 전달해 준다. 또한 독자들이 요청하는 주제에

관한 각종 자료는 전문직원이 검색해서 그 결과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공하고 있다.

美·日선 이미 實用化

머큐리센터는 앞으로 인텔리전트 에이전트(intelligent agent) 사업을 추가할 계획이다.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는 일종의 심부름센터와 같은 기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여행을 한다고 하자.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는 스케줄을 짤 수 있도록 비행기와 호텔예약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요청에 따라 예약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전자신문의 질과 서비스 개선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매체로는 뉴욕타임스·워싱턴 포스트·USA투데이·시카고 트리뷴·애틀랜타저널·디트로이트 프레스·팔로알토 위클리 등이 꼽힌다.

뉴욕타임스는 1994년 6월 9일부터 미국 최대 컴퓨터 통신망인 아메리카 온라인을 이용해서 뉴스배달을 시작했다. 뉴욕타임스가 제공하는 전자신문은 당일자의 뉴스와 해설은 말할 것 없고 과거신문의 기사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USA투데이와 시카고 트리뷴은 아메리카 온라인사와, 실리콘 벨리의 팔로알토 위클리는 세계에 2천만명의 가입자를 갖고 있는 컴퓨터통신망인 인터넷과 제휴해서 이미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최근들어 정보의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1994년 말 첨단 전자신문 'WP엑스트라'를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워싱턴 포스트가 전액 출자한 디지털 잉크사가 서비스하기 시작한 WP엑스트라는 지금까지 나온 전자신문에 비해 한발짝 더 나아간 형태를 하고 있다.

WP엑스트라는 PC화면에 워싱턴 포스트의 지면이 그대로 떠 오르는 것이 특징이다. PC화면 오른쪽 3분의 2에는 지면이 떠 오르고 왼쪽 3분의 1에는 지면소개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용자는 원하는 지면의 어떤 뉴스이고 찾아 읽을 수 있다.

원하는 뉴스는 마우스를 사용해서 간단히 화면에 나타낼 수 있다. 보고 싶은 뉴스의 제목을 마우스로 짚어 주면 화면 오른쪽에 뉴스가 나타나고 왼쪽엔 관련된 기

사의 안내목록이 나타난다.

관련 안내목록엔 뉴스에 대한 배경 설명과 해설은 물론 발표문일 경우 전문이, 인물에 관한 내용일 경우 개인 정보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어렵지 않게 꺼내 볼 수 있다.

WP엑스트라는 신문에 실리는 뉴스가 지면계약으로 기사가 선택되고 내용이 요약될 수 밖에 없었던 것과는 달리 취재된 모든 정보를 거의 제한

없이 독자에게 서비스할 체제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백악관과 의회에서 행한 각종 발언과 연설의 전문, 국무성 브리핑의 전문이 실리는 것은 물론이고 하루 5백여개에 이르는 전국의 스포츠 경기 전적이 모두 들어가며 각종 크고 작은 지방뉴스와 심지어는 대학과 고등학교의 소식까지 수록해 가입자가 직업·취향·연령·성별에 따라 기사를 골라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WP엑스트라는 워싱턴 포스트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WP엑스트라는 기사뿐 아니라 도표와 사진을 기사와 같이 볼 수 있다.

지면에 실린 사진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거나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싶으면 컴퓨터를 통해 이날 같은 현장에서 찍은 여러 컷의 사진을 모두 검색할 수 있으며 이를 프린터를 이용해서 인쇄할 수도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자신문의 구독료를 현재의 신문구독료와 비슷한 월 10달러 내외로 잡고 있는데 가입자를 시범사업 첫해인 1995년은 1만명선으로 잡고 있지만 이를 5년 안에 25만명선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휴대용 무선통신도 개발

미국 이외에도 일본의 일본경제신문(日本經濟新聞), 프랑스의 르몽드 등이 기사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은 1980년대부터 세계를 대상으로 일본경제신문을 비롯해서 일본산업신문(日本産業新聞)·요미우리(讀賣)·아사히(朝日) 등 일본에서 발간되는 8개 신문의 기사와 다양

한 기업·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르몽드·피가로는 약 8백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공공 컴퓨터 통신망인 미니텔을 통해 역시 기사와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신문은 지금의 신문에 비해 아직 많은 결점을 갖고 있다. 첫째,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신문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휴대형 모니터가 있어야 하고 무선통신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둘째, 신문과 편집상의 차이가 있어 보기에 불편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개발된 전자신문은 PC화면에 문자정보만을 전달하기 때문에 읽기가 신문에 비해 어렵고 답답하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문과 같은 편집방법을 택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신문의 편집을 아작은 따라잡을 수 없다.

셋째, 구독료가 비싸게 먹힌다는 것이다. 전자신문은 광고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어 구독료를 비싸게 매길 수밖에 없다. 또한 전자신문을 보려면 단말기 즉 PC를 구입해야 하는 추가 비용이 든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들은 컴퓨터와 통신분야의 기술발전으로 머지않아 해결될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PC는 기능과 용량이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해지고 커지면서 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휴대용 PC가 이미 실용화됐고 무선통신을 할 수 있는 PC도 개발됐다. 광고는 기사 사이에 끼워 넣는다는던지 영화평 기사에 영화광고를 붙이고 쇼핑란에 쇼핑광고를 따로 내보내는 방법 등이 개발되고 있다.

한편 전자신문이 문자만을 제공하던

시대에서 음성과 동화상(動畵像)정보를 수용하는 시대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쇄매체와 전파매체의 영역과 특성이 없어져 오늘의 대중매체는 일대 변혁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오늘의 인쇄매체와 전파매체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신을 하든가 전자신문을 택하지 않으면 안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일은 정보고속도로가 깔리는 2000년대로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과 유럽 등 선진 여러나라들이 정보화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정보고속도로를 까는데 국가적인 힘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각 가정에까지 정보고속도로를 까는 일을 마칠 계획으로 있다. 우리나라도 2015년까지 정보고속도로망을 완성할 계획으로 있다.

20년 후면 정보망 완성

2015년이면 앞으로 20년이 남아 있다. 20년이면 상당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은 이를 생각 외로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정보의 압축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해서 무선을 통해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르게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면 구태여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정보고속도로를 깔지 않고도 문자와 음성에서 동화상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세계의 우수 언론사가 전자신문 발전 추이에 큰 관심을 쏟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⑤7